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외침

기고

주중섭
전남도의원



제133회 세계노동절에 자신에게 기쁨을 끼였고 분신한 양회동은 우리 곁에서 함께 맘 흘렸던 철근공 건설노동자였다.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였던 양회동 건설노동자는 현장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했던 성실한 노동자였다. 자신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는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것은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라며 유서를 남겼다.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조합 만들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당연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공갈범이라고 모욕하고 몰아세우는 것에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건설 현장엔 산업 특성상 한 현장에서 고정되어 일하지 않고 현장을 옮겨 다니고 생산물인 건축물은 일회적인 생산품이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하나의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일하기보다는 일할 때마다 현장의 작업을 진행하는 건설 회사에 따라 고용주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건설 현장에도 지역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서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그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제서야 겨우 인간답게 대접받고 땀땀한 노동자로 살겠다던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현 정권 들어 무지막지한 억압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노조는 유석열 정권이 건설노동자들을 건설 폭력배라며 노동기본권까지 짓밟고 200여 일 이상을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언론까지 총동원해 전방위적 탄압을 일삼고, 건설노조 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건설노동자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산재사고 등의 빈번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오히려 건설현장을 빠르게 세우겠다는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을 적법하장으로 탄압을 자행한다고 성토했다.

분신 후 51일 만에 장례식을 치루게 된 양회동 열사가 남긴 외침은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부실시공과 대형산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임금 하한선이 없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기에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절한 임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었다.

社說

국회 특권포기 선언, 행동으로 옮겨져야

쇄신 3대 과제 정치권 공감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가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는 것이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선언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김기현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 모두 당론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미 이 논의가 진행됐고, 지도부 전체적으로 김 대표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의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여야 전원이 서명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비판받고 있다. ‘의원 무노동 무임금’도 만시지탄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될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 된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겠다는 국회의 방침에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당장 22일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일은 안 하고 세비는 받아야겠다는 알뜰한 계산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가져올 수 없다.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쉬운 수능’보다 공교육 강화가 우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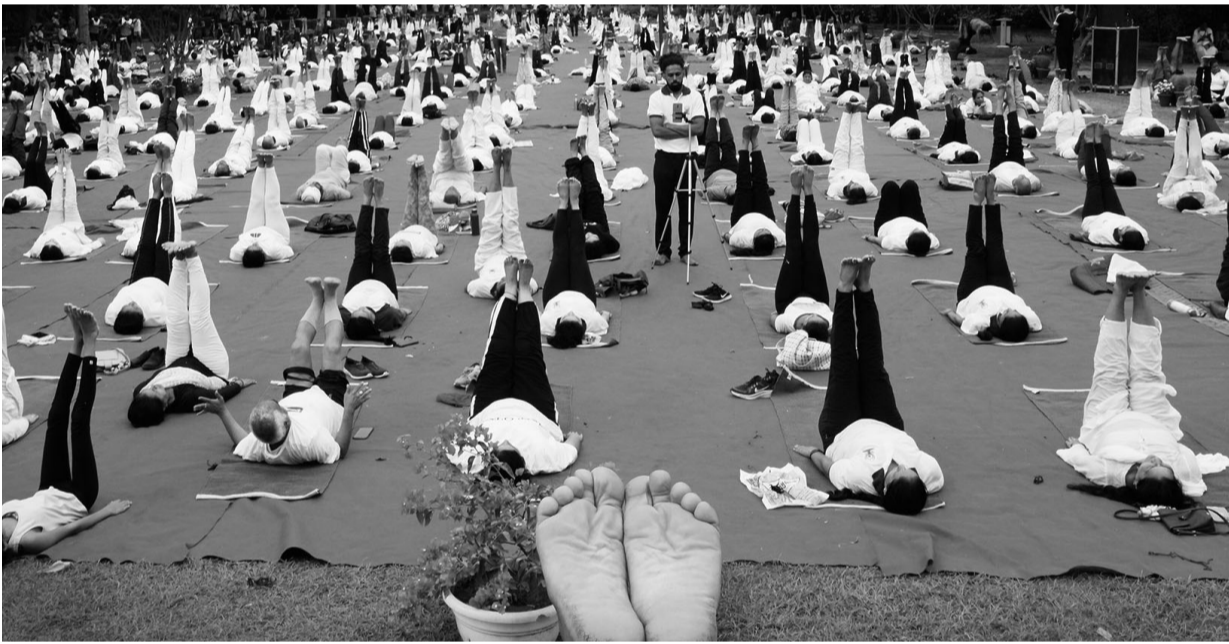
대통령 발언에 입시계 쓴소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학 입시계가 대혼란이다. 수학능력 시험에 공교육 외 출제를 금지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여기에 사교육 시장을 약화시키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능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라 교육계 전체가 휘청한다. 쉬운 수능이면 내신, 본고사 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지역 교육계 목소리에는 우려가 진득히 배어 있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은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현 대입 시스템에서 수능이 쉬워지면, 대학 입장에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제2의 단계를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본 고사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지역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중상위권은 수능이 쉬워지면 ‘1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란 인식이 퍼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신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시 합격을 위해서다. 여기에 합격선이 이동쳐져 수생이 대거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올해 수능의 가능자 역할을 하는 9월 모의평가부터 입시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1문제에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예측에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무게가 아예 다르다. 더욱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 정책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쉽게 발언해서는 안된다. 사교육 약화를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사실상 사교육 시장은 어떤 교육 정책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 왔다. 문제 풀이 훈련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현 구조 안에서는 이들이 약화될 그 어떤 틈새도 존재하지 않는다. 차라리 고교 서열화 폐지와 문제 풀이가 아닌 복합사고를 요구하는 형태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허나 이 역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따름이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예측이 쉽지 않다. 당장은 정책 책임자가 발언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잘못 이루는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요가의 날’인 21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의 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 요가를 하고 있다. 힌두교 현자들이 처음 행한 고대 요가는 할리우드 이후 인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수출품 중 하나가 됐으며 인도 외교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뉴델리=AP/뉴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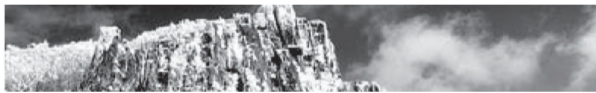
서석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청어가 있다. 살아있는 청어는 식감이 아주 좋고 높은 가격에 거래됐는데, 바다에서 잡은 청어는 항구에 도착하는 동안 대다수가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의 지혜로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어부가 쓴 방법은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음으로써 청어들이 메기의 습격을 피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기 효과’라는 말이 유래했다. 이 말은 주로 경제 논리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생태계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함과 동시에 같은 생태계 내의 다른 경쟁자들의 능력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국내 메기효과 대표 사례로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꼽힌다. 국내 가구업체의 메기는 글로벌 가구 공룡이라 불리는 이케아다.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할 때 많은 이들은 국내 가구시장을 독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도산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오히려 성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케아가 상륙하기 전 국내 가구업체들은 도심에 직영 매장을 운영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통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특화가구, 조립·배송 및 사후관리 등에도 신경을 쓰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케아 또한 한국 진출 첫 해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메기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가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적자생존이 철저한 스포츠계에서도 ‘메기효과’는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에 최원준이라는 메기가 합류하면서 타선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상무에서 전역한 직후 합류한 최원준은 복귀전이었던 13일 고척 키움전에서 멀티안타를 때렸다. 14일 키움전에서 2안타를 생산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6-18일 NC와의 홈 경기 3연전과 20일 대전 한화전에서선 18타수 2안타로 주춤했지만 기존 1루수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타율 0.184에 그쳤던 변우혁은 최근 4경기에서 11타수 5안타 1홈런 5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는 등 6월 들어 4할의 고타율을 기록 중이다. 현재 퓨처스리그에서 타격감을 조정 중인 황대인도 최근 6경기에서 4홈런 7타점을 기록하며 1군 복귀를 위한 잔결음을 하고 있다.

현재 6위권에 갇혀 있는 KIA타이거즈가 최원준이라는 ‘메기 효과’로 순위 상승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최동환 문화체육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